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공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lab@ntck.or.kr

국립극단 10+
청소년극

더 나은 숲

Die besseren Wälder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공연 안내

국립극단 청소년극

2021 더 나은 숲 Die besseren Wälder

작

마틴 발트샤이트

연출

토니 그레함

공연 기간

2021.10.29.(금) - 2021.11.21.(일)

공연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주최/제작

국립극단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10+

국립극단 청소년극 10+

“우린 도망치는 게 아냐.
더 나은 숲으로 가는거지.”

꽃이 피어나는 봄, 하얀 눈송이와 함께 온 퍼디난드.
푸른 초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풀을 뜯으며 ‘바아아’ 울고, 당근 케이크를 먹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고 골치 아픈 꿈. 퍼디난드는 매일 밤 뒤척인다.

어느 덧 퍼디난드는 지역 사회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이며,
유명한 운동선수, 멋진 가수로 자란다. 하지만, 울타리는 백 번도 넘게
뛰어넘을 수 있더라도 울타리 밖의 세상은 금지 된 지 오래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와 의 우연한 만남 이후 퍼디난드의 삶은 완전히
뒤집히고, 그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맞서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도.

“We’re not running away,
we’re heading for
better forests.”

He grazes on the prairie with his friends and cries Ba - a - a and his favourite food is carrot cake - but something is not right. He has strange, troubling dreams that keep him awake at night. As he grows up, he becomes a model member of his community, a renowned athlete and a fine singer. He could easily jump over the fence a hundred times but the world outside is forbidden. After a chance encounter, his life is turned upside down and he is faced with a choice that forces him to confront who he really is. And who he truly wants to be.

김민주 KIM MINJU



김민주 KIM MINJU
배역 퍼디난드

연극 〈여성예술가귀국전: 최승희〉〈여기에는
메테이가 없습니다〉〈밤이 되었습니다〉〈오렌지
북극곰〉〈우리가 고아였을 때〉〈좋아하고 있어〉

영화 〈시스터즈〉〈무서워서 크게 부르는 노래〉
〈사람 하는 사랑〉〈Dahee Die〉〈하우쓰 케이크〉〈넌
누구니?〉

드라마 〈리필이프온리〉〈편의점샐러리〉

김서연 KIM SEO YEON



김서연 KIM SEO YEON
배역 멜라니, 마샤, 엄마양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황규찬 HWANG KYU CHAN



황규찬 HWANG KYU CHAN
배역 백, 야니스, 할아버지양, 새끼양, 신부, 사냥꾼

연극 〈폰팔이〉〈나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거네〉〈3인이
할 수 있을까?!〉〈더플백〉〈올모스트, 창천〉



이동혁 LEE DONG HYOEK



황순미 HWANG SOON MI

이동혁 LEE DONG HYOEK

배역 바냐, 곰, 아빠늑대, 멧돼지, 양털깎는사람

연극 〈환상회향〉 〈조치원 해문이〉 〈미국 아버지〉
〈햇빛사위〉 〈환도열차〉 〈불씨〉

황순미 HWANG SOON MI

배역 프라우케, 거위, 엄마늑대, 늑은늑대, 암늑대

연극 〈홍평국전〉 〈물고기로 죽기〉 〈FAN〉 〈미국연극
서울합창〉 〈제 4의 벽〉 〈쉬지 스톱크〉 〈이게 마지막이야〉
〈9월〉 〈너에게〉 〈집시들〉 외



난 잠을 잘 못 자. 난 계속 꿈을 꾸. 꿈에서 내가 눈송이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Ich schlaf schlecht. Ich träume immer ich falle aus dem Himmel wie eine Schneeflocke.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

〈더 나은 숲〉이 최초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 어느 날, 어떠한 발상으로 집필하게 되었는가?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생각이었다. 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오랫동안 찾아왔다. 우리를 만드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일까, 아니면 태어난 곳의 문화에 따라 우리도 달라지는 걸까? 이 우화는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어떠한 주제의식을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는가? 한국의 배우와 스태프가 참여한 첫 모임에서 작품의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매우 흥미로웠던 지점은 각자가 느낀 주제의식이 상당히 다양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이 겪은 삶과 속한 사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신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가?

배우들과 한국 창작진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다. 하나의 작품은 누구나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하나의 거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거울을 우리가 통과해 지나가기도 하고, 그 거울이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작업들이 일러스트이며 동물들로 의인화 한 작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을 특별히 동물로 의인화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낸 이유가 있는가?

동물을 등장인물로 등장시키면 이야기에 거리감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친밀함도 생겨난다. 그 외에도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해 보편적인 내용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작업 하고 있다.

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어떻게 어린이, 청소년과의 소통을 하는가?

나에게는 7세, 13세 아이 둘, 32세까지 총 네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아동 및 청소년과 보낸 시기가 꽤 있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독자들과 함께 워크숍도 자주 진행했던 만큼, 언제나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외에 나의 내면 속 아이도 꽤나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

연극뿐만이 아니라 일러스트북, 라디오드라마, 오디오북, 영화 작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장르에 비해 연극 작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연극 작업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점에 두는가?

미니멀리즘, 그리고 연극 속 대화에서 나타나는 속도를 좋아한다. 개인적으로는 리듬을 강조하는 편이고, 연극이란 예술의 언어로 이야기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 나은 숲〉은 무엇일까? 작가 본인에게는 ‘더 나은 숲’이 무엇인가? 또한 각 개인과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가? 우리가 존재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쏟아지는 장대비처럼 무수한 의문 속에서 그저 우연히 거기 존재하게 된 하나의 빗방울인 것은 아닐까? 삶의 희생양이 되어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 만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다 해도, 어리석음으로 얻는 달콤한 거짓보다는 진실에 다가서는 편이 낫다. 물론 무지가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이라는 말도 맞지만, 지식만큼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관객 특히 청소년관객에게 어떻게 다가가길 원하며, 한국관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부탁한다.

한국 관객 여러분께,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국이 분단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도 오랜 분단을 끝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유대감이라는 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아마도 사랑보다 더 큰 감정인 듯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족, 집단, 민족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우리는 아마도 퍼디난드가 두 가족 사이에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친애하는 한국 관객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삶을 누구와 함께 살아내고 싶은지 알아내려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마틴 발트샤이트(Martin Baltscheit)

〈더 나은 숲〉: 어둡지만 희망을 품은.

〈더 나은 숲〉은 〈노란 달 YELLOW MOON(2013)〉, 〈타조 소년들(2014, 2016)〉에 이은 세 번째 국립극단과의 작업이다. 세 작품에는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는 듯하다. 청소년 주인공의 성장과 정체성의 발견, 그리고 자기 내면의 힘을 마주하는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공통점도 있겠지만, 〈더 나은 숲〉이 다른 작품들과 주제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연출로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청소년극은 이슈를 다루거나 교훈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퍼디난드 역을 맡은 민주가 말했다. 이 연극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청소년극이 아닌 것 같다고. 청소년이 겪는 ‘문제’-부모, 학교, 친구,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 등-를 다루지 않는다는 면에서 독특하다는 것이다. 청소년극은 이런 특정 이슈를 다루는 연극이 되기 쉽다. 나는 이런 연극은 싫다. 청소년들은 이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다. 쉬운 해결책이 없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마치 답을 아는 척 해서는 안 된다. 연극은 주제를 전하기보다 하나의 스토리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을 다른 방식, 다른 경로로 탐색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은 숲〉을 통해 관객들이 어떤 스토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한 편으로 이 연극은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늑대이지만 양으로 자라난 소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소년은 혼합된 정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이며 스토리를 앞으로 끌고 가는 힘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 그 과정에서 소년은 질문을 가지게 된다. 늑대이면서 동시에 양일 수는 없는가? 어떻게 이 두 가지 다른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중 정체성이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특히 예민하게 이 고민과 갈등을 통과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해야 하나, 저것을 해야 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저렇게 해야 하는 걸까?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 한 편으로 이 연극의 핵심은 〈더 나은 숲〉이라는 제목 안에 있다. 주인공 퍼디난드는 비록 늑대 부모와 가슴 아프게 이별을 하긴 했지만, 그들로부터 인생에서 처음 배운 것이 있다. 더 나은 숲이 어디엔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숲. 이것은 연극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찾고 쫓는 꿈, 이상이다. 내일이면, 다음 달이면 더 좋아질 거야. 바로 ‘희망’이다. 퍼디난드의 양 엄마인 프라우케는 아기가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바냐 역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다는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다. 마샤는 양들이 살고 있는 언덕을 부러워한다. 멜라니는 울타리 밖 세상을 동경한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더 나은 숲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비전일 수도,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혹은 개인적인 비전일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이런 비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내가 이걸 가진다면 완벽하게 행복해질 텐데. 이런 꿈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희곡을 읽고 모호한 결말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더 나은 숲은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 과연 더 나은 숲은 있는가? 하지만 만약 없다면, 왜 그냥 포기해 버리지 않는가? 세상에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기아, 불평등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런 일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나은 숲’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다면 포기하게 될 것이다. 나 자신도 사회도 변화가 불가능하게 보일 것이다. 현실의 어두운 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어른을 위한 연극과 청소년을 위한 연극은 다를 것이 없지만 청소년을 위한 연극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순간에 퍼디난드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그 순간 희망을 발견한다. 자신들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곰과 거위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친구가 되어 준다. 그것이 희망이다. 그가 양 부모에게 받은 사랑, 마샤에게 받은 도움... 이것들을 통해 그는 배웠다.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은 어린이들보다 모호성을 더 잘 다룬다. 이 스토리는 어둡지만 허무주의는 아니다. 오히려 강렬한 생명의 정신이 극을 관통하고 있다. 엄청난 변화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인공 퍼디난드를 여성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남성 배우가 소년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 다른 감각을 여성 배우가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햄릿’과 같은 셰익스피어의 남성인물을 여성 배우가 연기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과 비슷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민주는 오디션에 참가한 배우 중 가장 뛰어난 배우였다. 퍼디난드 역할은 특히나 더 어렵기 때문에 뛰어난 배우가 필요했다. 결론적으로 혼합 혹은 이중 정체성이라는 극의 핵심과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관객이 이 연극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가?

이야기 자체로 재미있기를 바란다. 연극은 무엇보다 즐거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객을 지루하게 하는 것만큼 나쁜 것도 없다. 관객이 깨어있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냥 눈을 뜨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에 눈뜨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인터뷰어 이인수는 글과무대의 대표이자 연출가, 번역가이다. 토니 그라함과는 〈노란 달 YELLOW MOON〉번역가로 처음 만났고, 〈여왕과 나이트िंग에일〉로 다시 만났다. 토니 그라함은 이인수의 최대 연출가이다.

Die besseren Wälder

〈더 나은 숲〉독일 공연과 작품 이야기

**“작가의 상징성을 꿰뚫어 보려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희곡 〈더 나은 숲 Die besseren Wälder〉이 2010년 독일 청소년 연극상을 받았을 때, 심사위원단은 아래의 대사를 매우 시사적인 내용으로 읽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그들은 이 문장이 당시 독일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민과 통합의 논쟁에 이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독일의 비평가 미하엘 슈미트도 “고립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양들의 모습은 유럽과 아프리카, 혹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더 나은 숲〉이 2012년 독일 그림스 극장에서 초연되었을 때 당시 독일 사회 최대의 관심사인 이주자 문제를 다루었다. 2017년 브레멘 시립극장 공연이나 2019년 뤼트 시립극장의 음악극도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핵심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일간 슈피겔 Tagesspiegel》에 실린 초연 리뷰에서 파트릭 빌더만은 “이 작품 안에서 작가의 상징성을 꿰뚫어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연극상 심사평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연극의 다층적 의미들을 파헤쳐 이주 문제 등 특정 대상을 직접 대입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사위원단이 뽑은 문장은 작가의 글 그 자체로서 더 명확해지면 좋겠다고 말한다.

〈더 나은 숲 Die besseren Wälder〉의 독일 공연들이 정치적 문제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인간의 정서적 성장으로 생기는 욕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두루 읽어낼 수 있다. 소망,

꿈, 정체성 문제, 전통과 가치, 문화와 교육의 다양성 등 독일의 극장들은 이 작품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주제들을 찾아낸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방황하는가? 문화란 무엇인가? 오늘날 문화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만약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2017년 브레멘 시립극장) 관객도 이러한 질문들을 발견하며 다양한 경로로 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다.

“한번 늑대는 영원한 늑대?”

〈더 나은 숲 Die besseren Wälder〉은 ‘동물 비유’를 하고 있지만, 작가는 우화의 형식을 강조하지 않는다. 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그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작품을 이끌어간다. 그 와중에 모순적인 장면들이 충돌하고, 흥미진진하면서도 날카롭게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늑대인 퍼디난드는 양들의 사회에서 양처럼 자랐으나 결국 자신이 늑대라는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하는데,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경계선에 머문다. 퍼디난드는 동족들의 세계와 자신이 자라난 세계 사이의 적대적 관계 사이에 끼여 양으로 살아갈 수도, 진정한 늑대가 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아주 순하게 살던 양이 사나운 늑대를 물리치는 장면은 두 집단을 단순히 울타리로만 분리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틸만 슈프레켈젠은 “이 작품이 타고난 본성과 성장 과정 중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는 점”에서 멋진 작품이라고 호평한다. 양으로 철저히 양육된 늑대는 양보다 더 양 같다. 이로 인해 ‘본성이나, 양육이나’의 문제가 이 작품의 논제 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훈육을 통해 정체성을 바꾸는 시도는 그들이 가진 전통과 권위를 바탕으로 한 강압적 행위라는 점에서 섬뜩하다.

“정체성은 대화이며 관계이다.”

그렇다면 퍼디난드와 멜라니가 울타리를 넘은 것은 잘한 일인가? 넘지 말아야 했는가? 이 장면은 도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퍼디난드를 사랑한 멜라니는 그보다 어리지만 용감하다. 그녀는 큰 세계를 꿈꾸고 관습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다른 양들과는 다르게 멜라니에게는 순종이 미덕이 아니었다.”(출판사 서평 중에서) 그렇다면 울타리는 없어야 하는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양쪽 세상을 보여주는 이 연극에서 선과 악의 구분은 없다. 각각 서로 다른 관점의 주관적인 진실이 놓여 있는 것이다. 퍼디난드는 양쪽의 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자신이 늑대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 정체성은 하나의 길이 아니다. 정체성은 대화이며 관계이다. 정체성 문제는 우리가 성장하는 존재이고, 낯선 존재가 되기도 하며,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한 계속 던져질 질문이다.

연극보다 더 연극적인

마틴 발트사이트의 그림책

독일에서 화제가 된 것은 발트사이트의 희곡만이 아니다. 초연 후에 출간된 일러스트 북이 신선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었다. 작가의 작업은 희곡-공연-그림책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의 그림책은 수많은 삽화로 채워져 있는데 만화도 아니고 그래픽 노블도 아니다. 장면 전환이 빠르고, 인물들이 설명 없이 등장하는 점들은 이 책이 희곡에 빚지고 있음을 단번에 알려준다. 무대에서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내용을 작가는 일러스트로 말했다. 이미지와 글이 형형색색으로 등장하고 글꼴이 이야기에 맞춰 변한다. 글자의 크기와 농도, 색깔이 이야기에 따라 조절된다. 이 책을 출판한 벨츠&겔베르크 출판사는 “작가는

검은 글씨로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 전체로 말하고 있다.”며 책의 특징을 명쾌히 정리해줬다. 이 새로운 형식은 독자에게 “예측불허의 문학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온라인 시대에도 계속되는

독일 학생들의 연극을 통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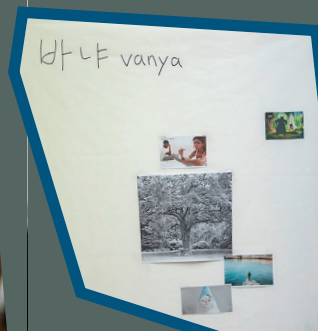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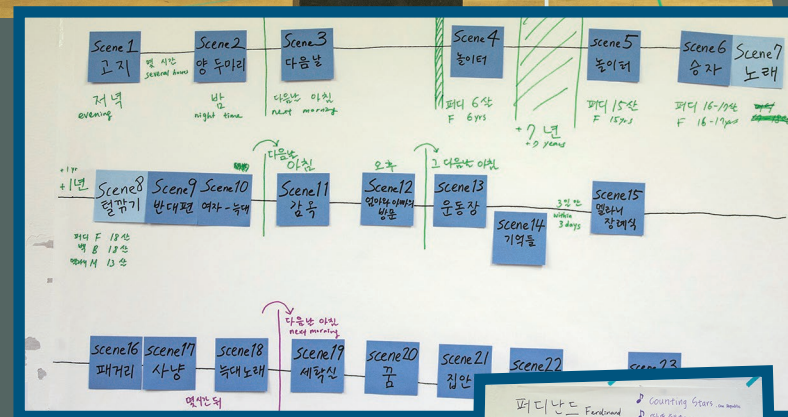
독일에서 청소년 연극은 문화와 철학, 미학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 연극상을 받은 극작품은 괴테 인스티튜트와 협력하여 외국 학생들의 언어 교육용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독일의 연극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입시교육에 치중하지 않는 독일의 교육 시스템 덕분이지만, 그보다도 연극을 시민 교육의 도구로 활용한 근대적 전통의 영향이 더 크다. 18, 19세기에 교양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한 국민 연극 교육이 오늘날 긍정적으로만 평가되지는 않으나, 연극이 교육 커리큘럼으로 안착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신에 오늘날의 독일의 연극을 통한 교육은 인터넷 시대에 맞게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 청소년들도 진지하고 지루한 것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연극 교육자들은 음악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그들의 시선을 끌고자 노력 중이다.

〈더 나은 숲〉의 한국 공연은 청소년뿐 아니라 입시의 문턱을 넘고도 취업이라는 더 큰 장벽을 목전에 둔 대학생과 청년들,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 헝기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돌아볼 시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서지영

연극평론가, 드라마투르그

중앙대 독문학 박사(독일희곡 전공)





둘러앉기, 질문하기, 스스로 선택하기

— 우리의 ‘더 나은 숲’을 위한 윤색과 연습의 과정

〈더 나은 숲〉연습장을 기억해보면, 연출과 배우들을 비롯한 팀원들이 연습장 가운데에 편안하게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하루의 연습이 끝날 때, 바닥에 둘러앉은 팀원들은 그날의 연습에 대한 개인적 소감과 궁금증들을 자유롭게 나눈다. 토니 그레함 연출은 배우들과 눈을 맞추며 그날의 연습에 대해 궁금증이 없는지, 연기할 때의 느낌은 어땠는지 먼저 질문한다. 어떤 질문이든 어떤 아이디어든, 가감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프로덕션의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 토니 그레함 연출이 일관되게 보여준 칭찬과 경청의 힘이 〈더 나은 숲〉연습장의 편안한 분위기를 끌어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더 나은 숲〉프로덕션에 한국어 윤색 작가로 참여하면서, 독일어 감수자 서지영 선생님과 프로덕션 구성원들이 함께 번역어를 고민하고 윤색 방향을 결정해갔던 과정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마틴 발트샤이트의 독일어 원작 희곡을, 영국 출신 토니 그레함 연출가가 연출하고, 한국 배우들이 연기하는 이번 〈더 나은 숲〉프로덕션의 경우, 번역과 윤색 그리고 창작 과정에 언어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 나은 숲〉프로덕션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처음부터 수면 위로 꺼내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했다. 꽤 긴 시간이 소요된 번역 및 윤색 작업에서, 독일 작가의 희곡을 동시대 한국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미 전달이 어려운 대사 하나하나를 놓고 최선의 전달 방식을 찾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았다. 이 오랜 과정이 무대 위 배우들의 발화 하나하나에 담겨, 동시대 한국 관객들의 마음에 가닿기를 바랄 뿐이다.

번역 및 윤색 작업은 영어본을 기반으로 하여, 독일어 원작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한국어의 미묘한 말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 작품의 한국어 제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우, 연출진을 비롯한 참여 작업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오갔다. 독일어 원문의 제목인 ‘Die besseren Walder(더 나은 숲)’을 그대로 옮긴 ‘더 나은 숲’을 한국어 제목으로 결정할 것인지, ‘Die besseren Walder(더 나은 숲)’을 ‘high ground(고지)’로 번역한 영어본을 참조해 ‘하이 그라운드’라는 말을 한국어 제목에 포함할지 고민했다. 최종적으로는 ‘더 낫다’는 뜻과 ‘더 좋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독일어 원제 ‘Die besseren Walder(더 나은 숲)’을 그대로 번역하는 방향으로 제목을 결정했다.

프로덕션 회의를 거쳐, 윤색 과정에서 한국어로 재창작하게 된 부분도 생겨났다. 어린 페르난드가 할아버지에게 들려주는 ‘샬러드 시’가 페르난드의 영리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풀을 먹는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란다는 토니 그레함 연출의 설명을 기반으로 페르난드의 ‘샬러드 시’는 번역 대신 재창작의 방향을 채택하게 되었다. 독일어본과 영어본 모두 ‘샬러드 시’에서 각 언어의 운율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만큼, 한국어로 재창작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말의 시적 운율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식물과 관련된 단어를 활용해 순수한 정서를 담게 되었다. 〈더 나은 숲〉극본에서 ‘페르난드’와 ‘곰’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갔다. 토니 그레함 연출은 외국 동화에서 ‘7’이 마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말의 반복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에 극본에서 ‘7’이 강조된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토니 그레함 연출의 설명을 참조해, 한국어로도 ‘7(칠)’을 반복적으로 발음하는 방식으로 윤색했다. 그 외에도 원작의 독일식 욕을 한국식 욕으로 번역하는 과정, 영어본의 운율을 활용한 농담을 한국어 농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때때로 과감한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은비 조연출 및 배우들의 아이디어가 윤문 과정에 반영되기도 했다. 페르난드, 멜라니, 벡, 프라우케, 바냐, 아니스, 마샤 등 극 중 캐릭터들의 이름이 동시대 한국어 화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내부적으로 거쳐, 아니스(Jannis)라는 인물의 이름을 영어식 발음인 ‘재니스’ 대신 독일식 발음인 ‘야니스’로 확정하는 과정도 더해졌다.

한편 〈더 나은 숲〉프로덕션 연습 현장에서는 사전 테이블 작업이 매우 세심하게 진행되었다. 테이블 작업에서 배우들과 함께 하는 철저한 대본 분석이, 공연 연습 전반에 지속적인 길잡이가 되어주는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니 그레함 연출은 대본을 ‘UNIT(유닛)’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우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중심 사건이 바뀌거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에너지가 바뀌는 부분을 배우들에게 먼저 질문한 뒤 연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극본의 장면들을 ‘UNIT’ 단위로 나누었다. 지문과 지문 사이에서 ‘UNIT’이 나뉘는 경우도 있었고, 지문 하나가 통째로 하나의 ‘UNIT’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UNIT’을 섬세하게 나누는 작업이 철저히 선행되었을 때, 배우들이 자신이 장면에서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게 되고, 주도적으로 연기하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장면 연습 과정에서도, 토니 그레함 연출은 계속 ‘UNIT’에 기반하여 캐릭터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연기의 방향성을 잡아주었다.

“이 장면에서 마샤가 원하는 게 뭐죠?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핵심은 무엇인 것 같아요?” 필요한 경우, 직접 연기를 보여주면서 배우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답답함의 에너지, 이 장면을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면 어때요?” “이때 퍼디는 뭘 하고 있죠? 퍼디는 조금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배우들이 스스로 장면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답을 이끌어 내는 연출 방식은 연습 과정 내내 일관되고 편안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하루의 연습이 끝난 뒤에도 연습장에 남아, 동료 배우와 대화를 나누는 배우들의 진지한 모습도 인상 깊었다. 노트한 것을 복기하고, 연기를

맞춰보고, 또 서로의 연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극본 속 장면들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어느덧 첫 런을 앞둔 연습실, 배우들과 각 영역의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토니 그레함 연출과 이은비 조연출이 첫 런을 앞두고 열띤 대화 중이었다. 연습실 바닥에는 소주병과 맥주병, 케이크 상자, 뜨개바늘과 털실 등이 놓여 있었고, 캐릭터와 관련된 동물 사진들과 스크랩된 각종 자료가 연습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많은 사진과 자료를 모으면서, 배우들은 점점 더 그 캐릭터들과 가까워졌을 것이다. 첫 런을 앞두고 토니 그레함 연출은 배우들을 불러 모았다. 장면 진행에서 중요한 지점들을 미리 이야기하며, 후반부까지 에너지를 유지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첫 런에 앞서, 혹시 걱정이나 질문이 있는지 또다시 배우들에게 물었다. 소품들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멈추고 가도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첫 런 이후, 언제나처럼 “Well done, everybody!”라는 토니 그레함 연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우들은 몇 가지 실수들이나, 고민이 되는 장면들에 대해 곧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첫 런이 끝나고 또다시 〈더 나은 숲〉의 팀원들이 동그렇게 연습실 가운데에 둘러앉았다. 연습실에 둘러앉은 그들의 다정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극본에서 만났던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생생한 몸으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연히 보이는 것들에 대해 깊이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더 나은 숲〉의 연극 연습, 우리는 이 연극 연습에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며,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서 머물지 스스로 선택하는 〈더 나은 숲〉의 주인공들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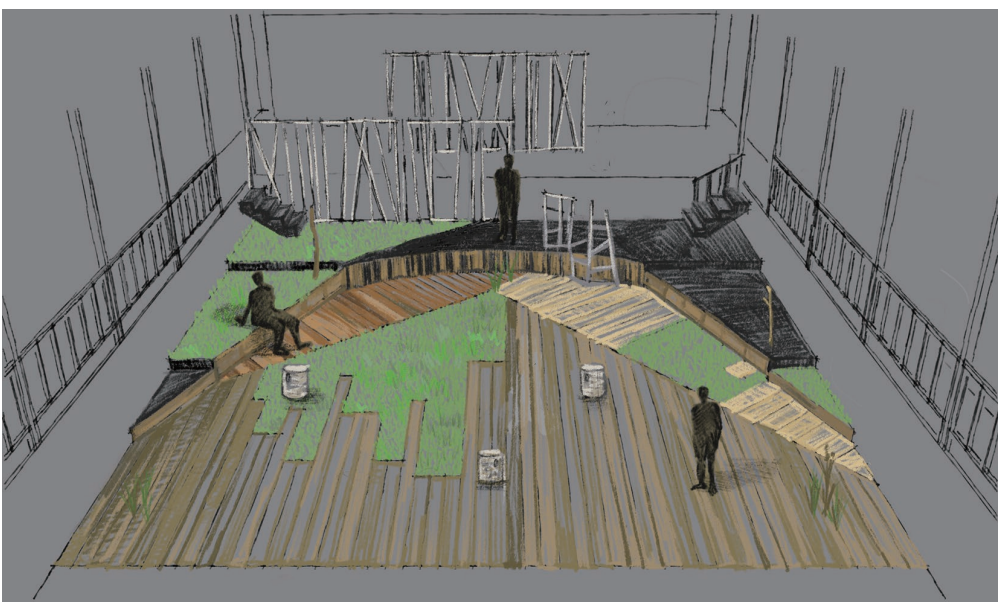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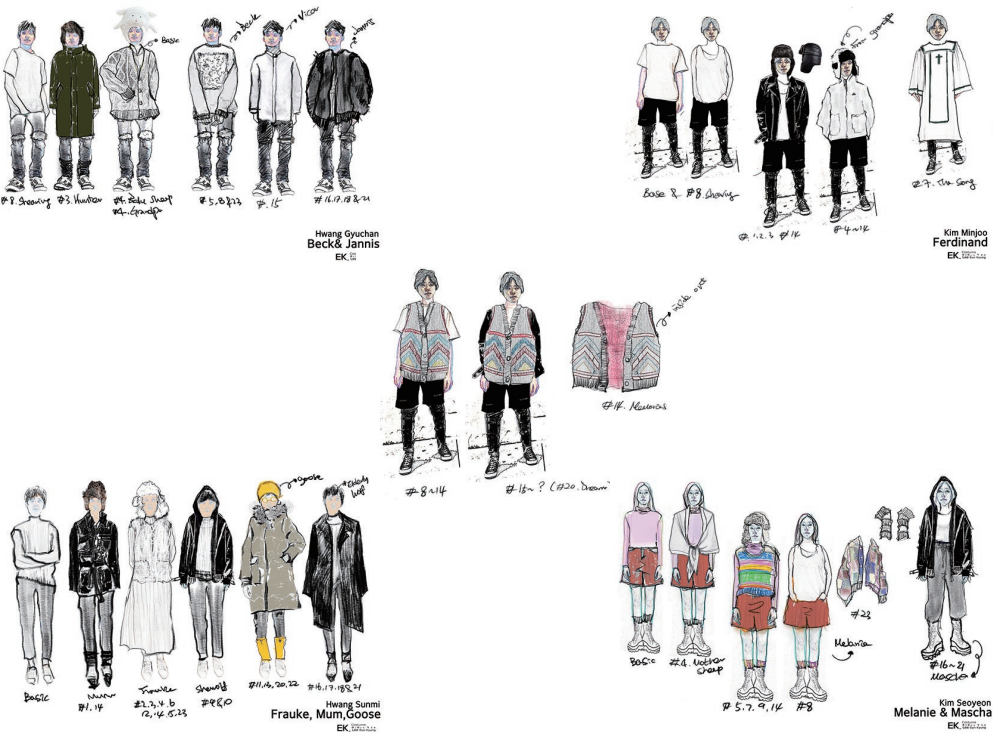
장영

1인 극단 눈과빛과영. 2018년 국립극단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희곡공모에서 〈G의 영역〉이 당선되어 작가로 데뷔했다.

*상세프로필 30페이지 참조



의상 디자인



무대 디자인

Scene 7. Schave Maria

Scha - ve Ma - ri - a, gra - ti - a ple - na,

Do - mi - nus te - cum. Be - ne - dic - ta tu in mul - i - e - ri - bus.

Sanc - ta Ma - ri - a, Ma - ter - De - i, Sanc - ta Ma - ri - a. A - men.

Scene 7. Ferdinand's Song

어 깨 를 마 주 하 면 슬 퍼 할 게 없 네 초 원 에 서 우 리 는 실 켓 먹 고

계 절 마 다 우 리 의 울 이 벗 겨 질 때 마 다 형 제 요 친 구 로 서

언 덕 위 에 선 다 네

음악 中 노래 악보

**일단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다 보면 많은 동물들을 만날 거고
동물들의 죽음들을 마주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들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전 상징이나 은유가
많은 작품을 좋아하는데
리허설만 보았지만 작품에
여러 상징이나 은유가
숨어있는 것 같아
본 공연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더 나은 숲이 아닌가
싶어요.**

— 오픈리허설 이후
청소년 피드백 중

**살아간다는 건 새로운 나를 짊어가고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과연 고유성이라는데 진짜 있을까?**

**장면이었는데도 아직까지 인상이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렬했어요.
처음으로 이거 하면서
제가 감정적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청소년극에서 청소년들은 어디 즈음에 위치하고 있을까? 연극과 연계된 예술교육에서,
예술교육팀과 청소년들의 작업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걸까?
우리의 만남이, 청소년들의 몸짓과 언어가 어떻게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작품과
나란히 존재하며 ‘소통’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과
열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상황에서 우리는 매주 이런 질문들을 마주했다.

글. 이소선 교육감독

09.17-11.03, 국립극단 스튜디오 둘		
첫 번째 만남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나요? / 견고, 바라보고, 만나기
두 번째 만남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뛰어넘게 하나요? / 몸으로 울타리를 넘어보기
세 번째 만남		‘나의 언어’는 어디에 있나요? / 우리의 ‘단어 숲’ 지도 만들기
네 번째 만남		무엇이 나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나요? / ‘단어 숲’ 속의 나를 만나기
다섯 번째 만남		‘더 나은 숲’을 향한 질문 / 오픈리허설
여섯 번째 만남		나를 더욱 나답게 하는 선택들 / 숲의 시간을 걸어보기
일곱 번째 만남		다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나요? / 여정을 되돌아보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번 〈더 나은 숲〉의 예술교육은,
가을별이 따사롭던 9월의 어느날, 국립극단 마당의 파라솔에서 서로의 근황을 묻는 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닿아가며,
꽤나 묵직한 이번 작품의 여정에 기꺼이 뛰어들었다. 길고 깊은 길을 지나오며 저마다의
속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청소년들의 사유와 통찰은 매 순간 놀라웠다.

여기, 그 반짝이던 순간들 안에서 저마다의 여정을 지나온 청소년들이 남긴 시간을, 향기를,
빛들을 소개한다. 이 작품을 조금 먼저 만나본 열일곱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이 작품을
어떻게 동행하게 했는지, 그들의 언어와 몸짓으로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더 만나보기를 권한다.



“눈을 감고 걷는데, 숲에서 길을 잃은거예요. 저 끝에 뭐가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한발자국도 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유가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서울역 15번 출구를 나서자마자 보이는 빨간 건물들,

이제는 익숙한 빨간 건물의 극장들과, 그 위로 펼쳐진 노을지는 하늘만 봐도
어떤 이야기와 마음들이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에 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그 찌릿함을 담고 국립극단의 마당 안으로 들어서서
몇몇 친구들이 모여있는 벤치로 걸음을 옮기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와 같은 시간,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누군가가(청소년들이, 또는 어른들이)
이 작품을 보게 된다면
이 작품을 만난 우리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직접 만나지 못해도
어디에선가는 달아있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닿고 싶었던 마음이 담긴, 우리의 길을 소개합니다.

2021년 가을,
서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길을 지지하며
우리는 함께인, 그리고 저마다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기적

어디로 가고싶은데?

걷고, 점프하고, 생각하던 우리는 우리가 함께 만든
또 다른 곳으로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이 곳 말고,
뭔가 우리만의 '숲'으로 말이에요.

How are you?

Where are you?

When are you?

Why are you?

What are you?

.

.

.

Who are you?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다 나를 공격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 시간을 지나워서 지금 내가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달까...?



나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꼭꼭 누르지 말아야겠다.
하고 싶은 거 하자.
대신에 책임은 내가 지자..

매순간 지금도 1초마다 사람은, 나는 바뀌고 있어

어쩌면 나한테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숨어 있겠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이었어.

"...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어디로 갈건지,
그리고 누구랑 갈 건지야. 하얀 늑대도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
자기가 되고 싶은 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넌 그럴 수 있어?"

〈더 나은 숲〉, 백의 마지막 대사 중에서.

백성희정관호극장



우리는 '더 나은 숲'을 향한 여정 안에서
마침내 이 연극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 만났습니다.

이 작품을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울타리를 넘고, 때를 기다리는 삶의 길목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기를 -
그 순간마다, 연극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 이번 여정의 voyager, 청소년17인과 예술교육팀 드림.

2021 국립극단 청소년 17인

김민진, 김송새봄, 김시준, 김희나, 노연우, 문에서
박규리, 박도연, 박선영, 서다은, 송연정, 양준이
유한별, 이수영, 임다은, 정현서, 최지예

〈더 나은 숲〉 예술교육팀

김연준, 박진선, 이소선, 최은주

스태프			만드는 사람들	
<div> <div>영어대본번역 박영훈 PARK YOUNG HOON</div> <div>연극 〈가면 속의 미녀와 야수〉〈우리 집 구석에 몬스터가〉〈타조 소년들〉〈실종〉</div> </div>				
<div> <div>윤색 장영 JANG YOUNG</div> <div>1인극단 눈과빛과영</div> <div>2021 〈인천 15분 연극제 레인독스〉〈오드아이프로젝트 FAN 쇼케이스〉〈아르코예술극장 개관 40주년 기념 전시 없는극장〉</div> <div>2020 〈FAN 차세대 열전2020! 쇼케이스〉</div> <div>2019 〈낭독의 목적〉〈G의 영역〉</div> <div>2018 〈국립극단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G의 영역 낭독 쇼케이스〉</div> </div>	<div> <div>조명 김형연 KIM HYOUNG YEON</div> <div>연극 〈천만개의 도시〉〈목선〉〈도덕의 계보학〉〈괴물B〉〈스푸트니크〉〈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구름한가운데〉〈7번국도〉〈호신술〉〈타조 소년들〉〈코리올라너스〉〈노란달〉</div> </div>	<div> <div>음직임 권영호 KWON YOUNG HO</div> <div>연극 〈작가〉〈돈데보이〉〈1인용 식탁〉〈영지〉〈오렌지 북극곰〉〈타조 소년들〉</div> <div>합창극 〈외할머니댁에서의 여름방학〉〈조강 환타지아〉〈가자 산타마울로〉</div> <div>무용 〈돌이 된 순간〉〈문〉〈뉴몬스터〉〈제7의 인간〉</div> <div>연희극 〈똥소리 판〉〈술빵〉</div> </div>	<div> <div>출연</div> <div>김민주 김서연 이동혁 황규찬 황순미</div> </div>	<div> <div>메인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div> <div>응용디자이너. WT</div> <div>홍보/공영/연습사진. 그린비</div> <div>온라인 생중계. 연두픽처스</div> <div>옥외광고. 영기획</div> <div>홍보물인쇄. 인타임</div> </div>
	<div> <div>작곡 장영규 JANG YOUNG GYU</div> <div>연극 〈갈릴레이의 생애〉〈얼굴도둑〉〈콘서트-동의〉〈페리클레스〉〈페르귄트〉〈게공선〉</div> <div>영화 〈배심원들〉〈항거〉〈봉오동전투〉〈판소리북서〉〈국성〉〈비밀은 없다〉</div> </div>	<div> <div>조연출 이은비 LEE EUN BI</div> <div>작, 연출 〈돼지떼〉〈죽음의 손병호 게임〉</div> <div>번역, 연출 〈즐거운 너의 집〉</div> <div>연출 〈조금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div> <div>조연출 〈그리스〉〈Joyce〉〈팬텀〉〈그와 그녀의 목요일〉〈머더포투〉</div> </div>	<div> <div>영어대본번역. 박영훈</div> <div>윤색. 장영</div> <div>독일어대본감수. 서지영</div> <div>통역. 서샤론</div> </div>	
	<div> <div>작곡 김선 KIM SUN</div> <div>연극 〈과부들〉〈바냐아저씨〉〈이영녀〉〈아버지와 아들〉〈오셀로〉〈실수연발〉〈오슬로〉〈밀밭에서〉</div> </div>	<div> <div>교육감독 이소선 LEE SO SUN</div> <div>이야기공방 마음담기 대표, 드라마리더</div> <div>예술교육 〈아일랜드〉〈노란달〉〈미디어의 아이들〉〈좋아하고 있어〉</div> <div>연출 〈얼굴〉〈깊은밤을 날아서〉</div> </div>	<div> <div>무대. 송성원</div> <div>조명. 김형연</div> <div>의상·소품. 이은경</div> <div>분장자문. 이지연</div> <div>작곡. 장영규 김선 정중엽</div> <div>음향. 안세운</div> <div>음직임. 권영호</div> <div>조연출. 이은비</div> </div>	<div> <div>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div> <div>홍보. 최윤영 이정현</div> <div>마케팅. 박보영</div> <div>온라인 마케팅. 오지수 조영채</div> <div>후원. 이승이</div> <div>청년인턴. 노소연</div> <div>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div> <div>유연지 이지민</div> <div>티켓. 김효진</div> <div>매표안내원. 김인혜 김경은 채수환</div> <div>하우스매니저. 김나래</div> <div>안내원. 정진영 임지은 송 솔 황지수 김지수 박주은 임지현</div> <div>고계령 박소담</div> </div>
<div> <div>독일어대본감수 서지영 SEO JI YOUNG</div> <div>연극평론가, 드라마투르그</div> <div>중앙대 독문학 박사(독일희곡 전공)</div> </div>	<div> <div>작곡 정중엽 JEONG JUNG YEOP</div> <div>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날치〉〈타틀즈〉</div> <div>연극 〈코리올라누스〉〈서교동에서 죽다〉</div> <div>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항거〉〈3〉〈빛나는 순간〉</div> <div>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카이로스〉〈오케이 광자매〉</div> </div>	<div> <div>예술교육 김연준 KIM YEON JUN</div> <div>상상탐사가지 보이저런처 대표</div> <div>예술교육 〈2020 청소년예술가탐색전〉〈영지〉</div> <div>아트디렉터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사물의 중력〉〈JUNGLE〉〈포맷_FORMAT〉〈단편소설집〉〈벽〉</div> </div>	<div> <div>교육감독. 이소선</div> <div>예술교육 기획. 손준형 정한솔</div> <div>예술교육. 김연준 박진선 최은주</div> </div>	
<div> <div>통역 서샤론 SUH SHARON</div> <div>연극 〈오렌지 북극곰〉</div> <div>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내한공연〉〈보디가드〉〈라이온 킹 내한공연〉〈마틸다〉〈빌리 엘리어트〉〈하데스타운〉</div> <div>외</div> </div>		<div> <div>예술교육 김연준 KIM YEON JUN</div> <div>상상탐사가지 보이저런처 대표</div> <div>예술교육 〈2020 청소년예술가탐색전〉〈영지〉</div> <div>아트디렉터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사물의 중력〉〈JUNGLE〉〈포맷_FORMAT〉〈단편소설집〉〈벽〉</div> </div>	<div> <div>무대감독. 김태연</div> <div>제작감독. 이승수</div> <div>조명감독. 류선영</div> <div>음향감독. 장도희</div> <div>의상감독. 박지수</div> </div>	<div> <div>프로그램북 제작</div> <div>기획/편집. 김미선 변승채 박성연</div> <div>디자인. 데저트팜</div> <div>줄거리 번역. 알리사 김</div> <div>인쇄. 미림아트</div> </div>
<div> <div>무대 송성원 SONG SUNG WON</div> <div>연극 〈영지〉〈음악극 랄랄라쇼〉〈제르미날〉〈사랑과 교육〉〈구직〉〈갈매기B〉〈좋아하고 있어〉〈구강구산 결과보고서〉〈로테르담〉〈아웃오브러브〉〈너를 만난다〉〈용종절제술〉〈서천꽃밭이야기〉</div> <div>뮤지컬 〈지하철1호선〉</div> <div>음감회 〈비밀의 정원〉</div> <div>소리극 〈이도〉</div> <div>오페라 〈썸타는 박사장 길들이기〉</div> <div>무용 〈비극-내일을 위한 우화〉〈창세무가〉〈한국무용?〉</div> <div>전시 〈No Title〉〈Y가 X에게〉</div> </div>	<div> <div>음향 안세운 AN SE WOON</div> <div>연극 〈만선〉〈소년이그랬다〉〈햄릿(국립극단)〉〈동양극장〉〈아리아라리(투어)〉〈햄릿(서울공장)〉〈노래하는새빠꾸〉〈버자이너모놀로그〉〈평창동계올림픽 문화3개국공연〉</div> </div>	<div> <div>예술교육 박진선 PARK JIN SUN</div> <div>배우 〈말괄량이 삐삐 오늘도 맑음〉〈오늘이〉〈사계의 색깔을 찾아서〉〈고요의 울림〉〈꿀강아지〉〈포맷〉〈지수가 누구야〉</div> <div>예술교육 〈2020 청소년극 창작벨트〉〈발가락 육상천재〉〈소년이그랬다〉</div> </div>	<div> <div>무대감독. 김태연</div> <div>제작감독. 이승수</div> <div>조명감독. 류선영</div> <div>음향감독. 장도희</div> <div>의상감독. 박지수</div> </div>	<div> <div>제작총괄. 김성재</div> <div>프로듀서. 김미선</div> <div>어시스턴트 프로듀서. 박성연</div> <div>제작진행. 변승채</div> </div>
	<div> <div>의상, 소품 이은경(EK) LEE EUN KYUNG</div> <div>연극 〈붉은 낙엽〉〈왕서개 이야기〉〈유리동물원〉〈고역〉〈영지20〉〈영지19〉〈조치원 해문이〉〈발가락 육상천재〉〈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우산도둑〉〈드림타임〉</div> </div>	<div> <div>예술교육 최은주 CHOI EUN JOO</div> <div>복합매체 작업자</div> <div>저서 〈The Coffee I Drink Everyday Is Different But the Cigarette That the Man Smokes Is the Same〉</div> <div>퍼포먼스 〈As Heavy as My Body〉〈Air as Experience of a Dimension of Space〉</div> </div>	<div> <div>무대진행. 김본이 한우정</div> <div>조명오퍼레이터. 박기완</div> <div>음향오퍼레이터. 정하운</div> <div>의상진행. 신은혜</div> </div>	<div> <div>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div> <div>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div> <div>사무국장. 오현실</div> </div>
		<div> <div>무대제작. 세원무대미술</div> <div>의상·소품제작. 이케이코스튬</div> <div>무대전식. 올세이즈</div> </div>	<div> <div>조명 프로그래머. 김대현</div> <div>조명팀. 정태진 윤진선 정동권 정찬영 이다빈 오정훈</div> <div>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유기순</div> </div>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옥 시설·운영·공사

박예원 인사·복무·복리후생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이지연 아카이브

박설아 연수단원

홍혜림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정채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김훈일

윤정민 김정연 프로듀서

박소영 연수단원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이정현 최윤영 홍보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승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노소연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나혜민 김정빈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박지수 이승수 경은주 제작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기완 정하운 허정윤 연수단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정한솔 연구개발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크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래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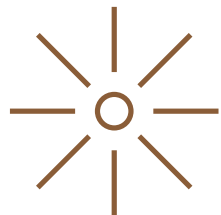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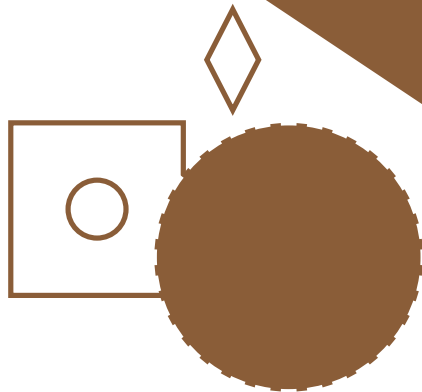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2011년 5월 2일 문을 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공연제작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제작 및 지역 공연, 작품 개발 및 연구,
예술교육이 있다.



인생의 근원, 어린이청소년의 새로운 좌표 찾기
예술의 주제, 삶의 주인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서사, 어린이청소년극
... 청소년극 제작 전반에서 관객과 관계 맺기와 쌓기
... 청소년 나아가 인간, 사회, 현대연극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다

2021년

- 〈소년이그랬다〉 (05.21-06.13)
백성희장민호극장 (07.30-31) 대구
수성아트피아

2020년

- 〈영지〉 (05.22 -06.14)
백성희장민호극장
- 〈발가락 육상천재〉 (10.30-11.22)
백성희장민호극장

2019년

- 〈영지〉 (05.23 -06.15) 소극장 판
- 〈죽고 싶지 않아〉 (08.22 -09.08)
백성희장민호극장 (07.04)
울주문화예술회관 (07.10/07.12)
충남학생교육문화원 (09.20 -
09.21) 성남아트센터
- 〈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11.21 -
12.15) 소극장 판

2018년

- 〈사물함〉 (04.20-05.06) 소극장 판
- 〈죽고 싶지 않아〉 (06.15-07.01)
백성희장민호극장 (07.12-07.13)
금산다락원 생명지집 (07.28)
가평문화예술회관 (09.07-09.08)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오렌지 북극곰〉
한국영국공동프로덕션 (10.11 -
10.21) 백성희장민호극장, 한국
(11.01 - 11.10) 더도어,
버밍엄레퍼토리씨어터, 영국

2017년

-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05.04-
05.21) 백성희장민호극장 (06.03)
상주문화회관 (06.13) 고흥문화회관
(07.26-07.27) 서산문화회관
- 〈좋아하고있어〉 (10.13 -10.29)
소극장 판
- 〈말들의 집〉 (11.17 -12.03)
백성희장민호극장

2016년

- 국립극단 청소년극 릴-레이 III
(05.19-06.19) 〈고등어〉, 〈죽고 싶지
않아〉
- 〈오렌지 북극곰〉
한국영국청소년극프로젝트 (09.01-
09.11) 백성희장민호극장
- 〈타조 소년들〉 (11.18-12.04) 소극장
판

2015년

- 〈빨간 버스〉 지역투어 (05.01-07.11)
진주 현장아트홀, 경성대 예노
소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
-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05.09-
05.24) 소극장 판
- 〈비행소년 KW4839〉 (11.13-
12.19) 백성희장민호극장,
경북학생문화회관, 장성문화회관

2014년

- 국립극단 청소년극 릴-레이 II
(05.17-06.21) 〈햄스터 살인사건〉,
〈옆에 서다〉, 〈비행소년 KW4839〉
- 〈레슬링 시즌〉 지역공연 (05.29)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06.07)
세종문화예술회관
- 〈타조 소년들〉 (11.15-11.30)
소극장판

2013년

- 국립극단 청소년극 릴-레이 I
(05.17-06.09) 〈소년이그랬다〉,
〈빨간 버스〉, 〈레슬링 시즌〉
- 〈레슬링 시즌〉 지역투어 (06.21-
07.26) 영암 삼호중학교, 마산
태봉고등학교, 경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영주 제일고등학교,
안성시민회관, 온양 용화고등학교,
광주적십자 청소년수련관
- 〈노란 달 Yellow Moon〉 (11.08-
11.24) 백성희장민호극장

2012년

- 〈소년이그랬다〉
지역투어 (04.05-07.21)
LIG아트홀 부산, 경기도문화의전당,
남해문화체육센터, 속초학생체육관,
남원문화예술회관,
부안예술회관, 정읍사예술회관,
강진아트홀, 단양군문화예술회관,
경주예술의전당, 고양어울림누리
- 〈레슬링 시즌〉 (05.29-06.10)
백성희장민호극장
- 〈빨간 버스〉 (11.22-12.16) 소극장 판

2011년

- 〈소년이그랬다〉 (11.24-12.04)
백성희장민호극장 (12.19-12.20)
광주 동성여자중학교

창작극, 재창작과 각색, 해외 공동제작, 지역공연 등 매년 2-3편의 청소년극을 올리고 있다.
2011년 '소년이그랬다'를 시작으로 총 24편을 제작, 457회 공연, 전국 42곳 순회,
총 78,000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페르디난드 : 이걸 날고 있는 게 아니지.

곰 : 날고 있지. 난 그냥 공중에 뜨질 않은 거지.

Ferdinand: Aber du fliegst nicht.

Bear: Klar fliege ich, ich hebe nur nicht ab.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이제 우리 중 누구도 순진하지 않네.
Wir haben heute alle unsere Unschuld verloren.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